

광주 AI 중심도시 조성·전남 호남고속철 사업 ‘숨통’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급한 현안 추진 청신호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시급한 현안 예산이 포함된 사업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 AI산업 마중물 확보 =추경안에 포함된 모빌리티 AX실증랩 조성(2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30억원)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 2단계 사업으로 가기 위한 일명 ‘브릿지’ 사업이라는 점에서 광주AI중심도시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모빌리티 AX실증랩 사업은 기존에 조성된 ‘대형 드라이빙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행 등에 관련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광주를 찾지 전 가상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국 어디서든 가상환경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번에 500개의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

AI헬스케어 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사업은 전남대병원과 구축한 AI인프라를 활용해 AI 기술을 활용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고도화하고 실증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공모사업이다.

1차 추경에 확보된 인공지능(AI) 전략사업 예산 153억 원에 더해 추가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증장비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서 경기회복 목적으로 SOC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지만,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관련 예산이 삭감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예산 379억 원이 전액 감액됐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광주시가 설계용역 부담금인 14억원만 집행했다더라 예산 삭감은 없었을 것”이라며 “같은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예산 5000억원이 삭감돼 국회에서 호남고속도로만을 다시 살려달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광주시의 예산 미집행을 꼬집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5 대5로 비율로 부담하기로 돼 있다. 설계용역을 마치고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광주시가 부담비를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공사는 멈춘 상태다. 도로공사 측은 설계용역 설계비를 포함해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총 100억원에 손해가 발생해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정의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채무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50%의 비율(8000억원 규모, 광주시 부담 4000억원 수준)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돼 미룰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원의 규모의 시비가 들어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사업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 광주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전액국비 지원이 반영된 만큼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광주시 부담비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 SOC 등 현안 타격=전남도는 김영록 지사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매진한 끝에 14개 사업, 6025억원의 예산을 확보, 나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전체 SOC 분야 추경액(7134억원) 중 20%인 1460억원을 확보하는 한 것도 긍정적이다.

구체적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1000억원, 보성~임도 철도 100억원, 압해~화원 도로 360억원이다. 무엇보다 호남 차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예산이 1000억원 반영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고막원에서 임성리역 간 44.6km 고속철도 전용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공정을 45%로, 전남도는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성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82.5km 단선을 놓는 보성~임성리 철도사업도 잔여예산 100억원이 반영되면서 목표로 했던 오는 9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하는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연결도로 예산도 360억원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1500억원 가까운 SOC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에는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정부 출연금 100억원이 반영되면서 학사 운영 정상화에 힘을 보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컨텍 개교 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 매년 250억원을 지원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으로 지원액이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200억원, 올해는 10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번 추경안을 통해 100억원이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시절 개교한 컨텍은 보수세력으로부터 ‘문재인 공대’라고 불리며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지원금 감소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원금이 복원되는 등 실험장비 도입 등 학사 정상화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첫 장관 인선 네이버 출신·AI 전문가들 ‘깜짝’ 발탁

AI 강국으로 도약 위한
국가 전략 속도 붙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장관 인선에서 네이버 출신과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잇따라 ‘깜짝’ 발탁됐다.

IT 업계에서는 민간 기술 리더십이 정책 영역으로 본격 진입하면서 AI 분야 100조원 투자 등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선 네이버 출신 인사의 잇단 기용이 눈길을 끈다.

지난 15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된 하정우(48)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네이버의 AI 선행 기술을 총괄한 딥러닝 전문가로 불린다.

하 수석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해야 한다며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해왔다. 그 결실 중 하나가 한국어에 특화된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였고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58) 네이버 고문은 국내 포털 산업이 탄생하고 자리 잡는 과정을 함께해온 IT 분야 여성 리더 중 대표 주자로 꼽힌다. 한 후보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시기 네이버를 모바일에 특화했고, 글로벌 서비스도 확장했다. 또한 웹툰 부분 유료화, 네이버페이 등을 탄생시키며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

이재명 정부 장관급 인선 현황

국방부 장관 후보자	통일부 장관 후보자	외교부 장관 후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보훈부 장관 후보자	환경부 장관 후보자
안구백(64) 1961년 전북 고창 출생 - 성균관대 철학과 - 성균관대 대학원 무역학 - 제18·19·20·21·22대 국회의원 - 국회 국방위원장	정동영(72) 1953년 전북 순창 출생 - 서울대 국사학과 - 영국 웨일즈대 카디프대학원 언론정보학과 - 제15·16·18·20·22대 국회의원 - 국회 통일부총리비서관	조현(68) 1957년 전북 김제 출생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 프랑스 파리정치대 대학원 국제정치학과 - 프랑스 툴루즈대 국제정치학 박사 - 외신 13회 - 외교부 제1·2차관 - 주유엔(UN)대사	배경훈(49) 1976년 서울 출생 - 광운대 전자공학과 - 광운대 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박사 -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 대통령 지속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위원 - LG AI연구원 원장	권오을(68) 1957년 경북 영동 출생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학과 - 제15·16·17대 국회의원 - 국회 사무총장	김성환(60) 1965년 전남 여수 출생 - 연세대 법학과 - 연세대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 제20·21·22대 국회의원 -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정책비서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유임)	국무조정실장
강선우(47) 1978년 대구 출생 - 이화여대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 이화여대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 -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 - 제21·22대 국회의원	전재수(54) 1971년 경남 의령 출생 - 동국대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 -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과 - 제20·21·22대 국회의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성숙(58) 1957년 경기 출생 -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 네이버 고문	김영훈(57) 1968년 부산 출생 - 동아대 축산학과 -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전국농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송미령(58) 1967년 충남 논산 출생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도시계획학 석사 - 환경계획학 박사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윤창렬(58) 1967년 강원 원주 출생 - 서울대 외교학과 -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 행정학과 - 행시 34회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

/연합뉴스

버 최고경영자(CEO)에 올랐고 5년간 그 자리를 유지했다. 그 사이 네이퍼는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연 매출 6조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인 배경훈 LG AI연구원장(50)은 LG경제연구원 AI자문 연구위원, LG전자 AI추진단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등을 지낸 AI 전문가 중 전문가다.

하 수석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탄생에 주축 역할을 했다면 배 후보자는 LG의 초거대 언어모델인 ‘엑사원’ 개발을 주도했다. ‘엑사원

3.5’는 미국 스탠퍼드 ‘AI 인덱스 보고서’에 포함된 국내 유일 AI모델이다. 국내 양대 AI 모델 개발을 주도했던 전문가들이 새 정부 AI 정책을 이끌게 된 셈이다.

배 후보자 역시 하 수석처럼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 국가전략자산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업계 인사가 발탁된 것은 LG 출신이었던 유명인 전 장관 이후 약 6년 만이다. 유 전 장관 이후에는 줄곧 교수 출신

이 장관에 기용됐다. 이날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임명되는 등 LG 출신도 2명이나 발탁됐다.

이처럼 새 정부에서 IT업계 현장에 실제로 부딪히면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 발탁되자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정책’이 집행되리라는 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료 또는 학계 출신 리더십이 정책을 주도했을 때와는 차별화되는 업계와의 시너지를 전망하는 관계자들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인문대학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